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국내 제조업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요 약

최근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의 우리나라 생산자물가 상승에서 이들 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요인을 국제 유가, 글로벌 유동성, 국제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으로 나누어 이들 요인이 국내 생산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요인별 충격을 2021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로 적용하였을 때 각각의 요인은 제조업 생산자물가를 단기적으로 2.18%, 0.21%, 0.74%, 0.48% 정도 높이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2월의 전년동기 대비 제조업 물가 상승율 14.4%에 이들 4개 요인이 약 3.6%포인트(제조업 물가 상승의 약 25%)만큼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생산자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채산성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물가에도 영향을 주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2021년 들어서는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2021년 11월에는 3.7%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상승률 4%대를 기록하였던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021년 11월 9.8%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전가로 인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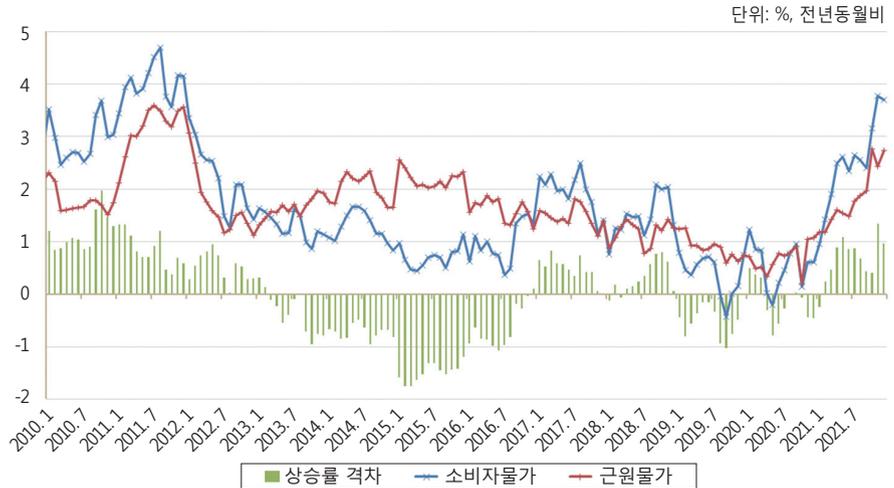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수요와 공급 양면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첫째, 경제 회복과 함께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 글로벌 회복세 및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특히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저금리, 양적완화)을 시행함에 따라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글로벌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국내 물가의 동향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는 물가 상승 요인을 검토한 후, 4절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국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2. 최근 물가 동향

2019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던 국내 물가는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해서

〈그림 1〉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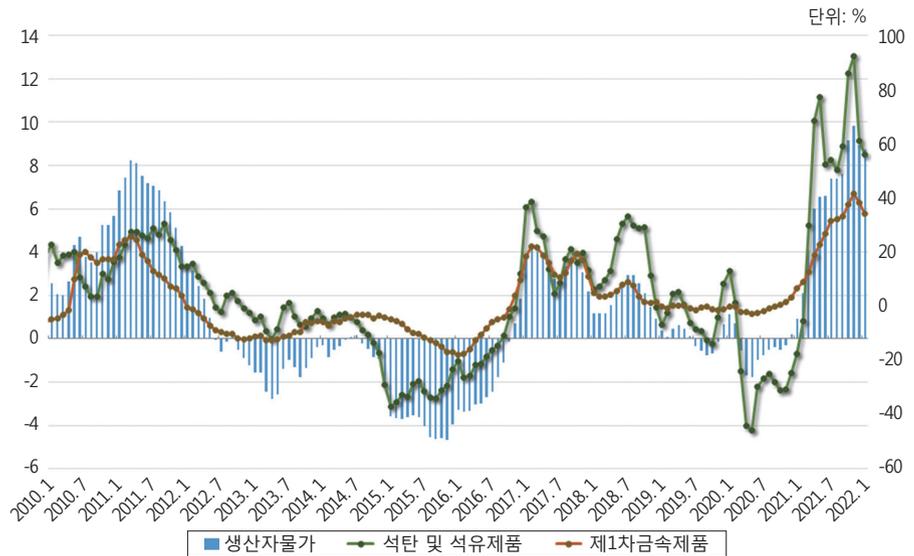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Data Stream.

주: 근원물가는 물가 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변동 폭이 큰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초적인 물가를 의미.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1년 4월부터 한국은행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서면서, 2022년 2월에는 3.7% 수준을 기록하였다. 물가 변동 폭이 큰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021년 10월까지 물가 목표 수준 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10월 이후 목표물가를 넘

〈그림 2〉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Data Stream.

어서면서 2022년 2월에는 2.9%의 상승을 보였다.

생산자물가 역시 급등세를 타면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1월 기준 9.8%까지 높아졌으며, 2022년 1월 현재 8.7%로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7월에 기록한 1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윤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 공산품의 생산자물가가 지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원유 가격 상승 영향으로 2021년 11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약 92%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2022년 1월 기준 5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차금속제품의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생산 급증에 따라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2020년 이후 지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11월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여 2022년 1월 기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나타났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 원유 및 원자재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물가 상승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¹⁾

3. 물가상승 요인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된다.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하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공급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하며, 원자재 등 상품의 생산 비용의 증가가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물가상승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수요, 공급 양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글로벌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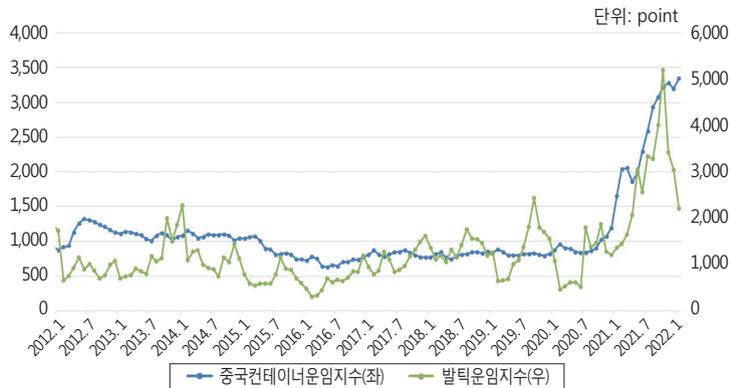
1)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 수입의 2.8%를 차지하는 10위 교역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25.3%), 원유(24.66%), 유엔탄(12.7%), 천연가스(9.9%) 등 에너지 품목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급망 교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 증가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글로벌 공급망 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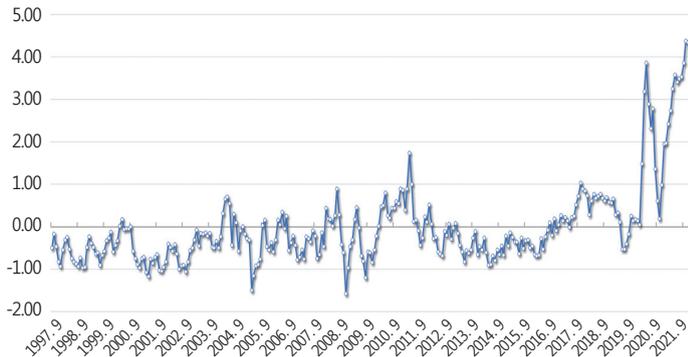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안정화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보복소비와 더불어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른바 ‘병목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이차전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각국의 방역조치 강화, 도시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

〈그림 3〉 운임지수 추이



자료: 중국 교통부·발틱해운거래소, Datastream.

〈그림 4〉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자료: New York Fed, "A New Barometer of Global Supply Chain Pressures".

면서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항공·해운운임 등 물류비의 상승도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원자재 운임지수인 발틱운임지수(BDI)는 11월 5,200포인트로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핸드폰, 노트북 등 공산품 물류 현황 지표인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뚫고 있다. CCFI는 2021년 4월 이후 급등하여 2022년 2월에는 3,565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운송 비용과 제조업PMI 등을 고려하여 공급망 교란 정도를 보여주는 종합 지표인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²⁾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봉쇄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수치가 2020년 4월에 4.0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4.4 수준까지 상승하여 분석 시점인 1997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기간에도 여전히 4.0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 글로벌 공급망 압력에 따른 물가 상승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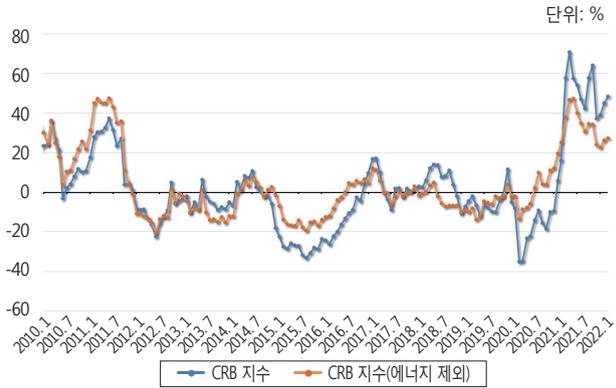
국제 원자재 가격은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하락하였으나,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반등 후 지속 상승하여 현재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Refinitiv CRB 기준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1년 5월 70.9%까지 상승하였으며, 2022년 1월 4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2017~2019년 동안 40~80달러 구간을 유지하던 유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봉쇄조치에 따른 수요 급감과 함께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전쟁³⁾의 영향으로 급속히 하락하여 2020년 상반기에 들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백신보급에 따라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OPEC+의 소극적인 감산완화 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유 공

2)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발틱운임지수(BDI)와 하펙스지수, 미국 내 항공 화물 운송 비용을 추적하는 노동부 물가지수 등 운송 비용과 관련된 지수를 분석한 자료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주요 경제권 단위로 모아 반영하여 산출되며, 평균값을 0으로 보고 평균에서 떨어진 표준편차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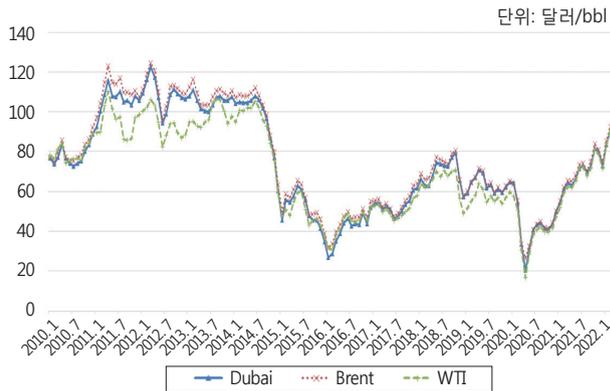
3) 2020년 3월 8일 석유 생산량 감산 합의 실패로 촉발된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원유 가격 전쟁이다. 이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원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림 5〉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Refinitiv Datastream.

〈그림 6〉 국제 원유 가격 추이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페트로넷.

주: 2020년 4월 20일 WTI유 가격은 -37.6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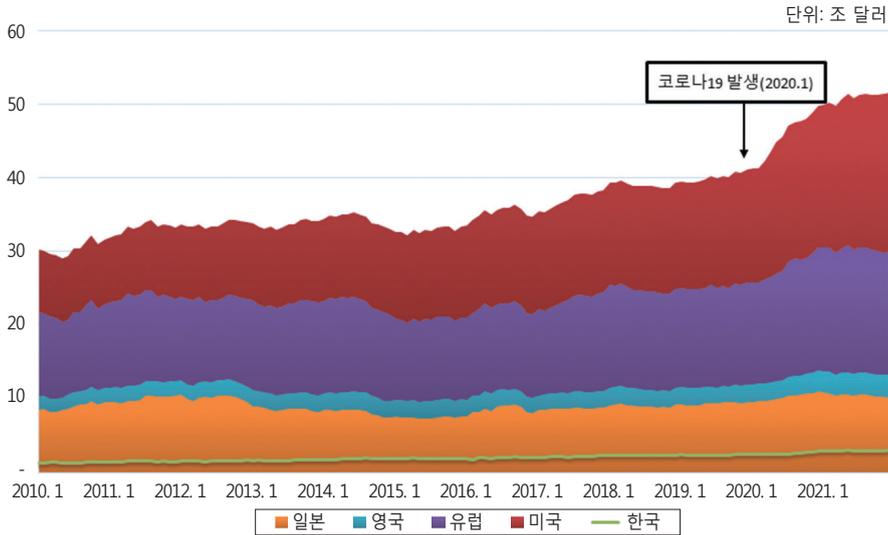
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공급 측면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2022년 3월 기준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유의 가격은 각각 배럴 당 111.5달러, 110.9달러, 107.8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70%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수급 요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에 국제 원유 수요는 공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회복세에 따른 산업용 수요의 증가로 급증하였으며, 2020년 3분기 이후 공급을 지속해서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

최근 물가 상승을 이끄는 원인의 하나는 코로나 19 이후 각국에서 시행한 대규모

〈그림 7〉 글로벌 유동성(M2) 추이



자료: Refinitiv DB, Datastream.

주: 글로벌 유동성은 미국, 유럽, 영국, 일본 M2의 합.

경기부양책에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에서는 실물경기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 조정,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2020년 3월에 제로금리를 단행하고, 4월에는 최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투입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1조 9,000억 달러의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한국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2020년 3~7월 기간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였다.

글로벌 M2의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M2 합계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 51조 달러 수준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1조 달러로 41.2% 증가하였으며, 유럽 16조 달러(20.4%), 영국 3조 달러(24.6%)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M2 규모는 3조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20.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4.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생산자물가 영향 실증분석

이 절에서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앞에서 제시한 글

로별 공급망 교란, 국제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⁴⁾ 과잉 등이 국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⁵⁾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물가 상승 주요 요인들이 업종별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표 1>과 같이 도출되었다. 충격 변수들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 유가로,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제조업 생산자물가가 0.68% 상승하는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석탄 및 석유의 생산자물가는 4.33% 상승하여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0.95%), 전기장비(0.76%), 제1차금속(0.47%) 등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10% 충격에 의한 제조업 생산자물가 영향은 0.50%로 국제 유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석탄 및 석유(0.87%), 전기장비(0.81%), 화학(0.70%), 제1차금속(0.44%) 등에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충격에 제조업 생산자 판매가격은 0.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기장비(0.73%)를 제외하면 단기적 충격의 전반적인 파급효과 수준이 낮았다.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유동성 10% 증가 시 제조업 생산자물가 영향은 0.003% 수준으로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화학(1.18%), 전기장비(0.90%)를 제외하면 효과가 낮거나 음(-)의 반응을 보이는 업종도 확인되었다. 이는 M2 공급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기업의 대출금리도 낮아져 기업의 금융 비용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4)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통화량 지표(M2)의 합을 글로벌 유동성이라 정의하였다.

5) 벡터오차수정모형은 장기균형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단기적인 조정 과정의 동태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장기균형에서 이탈된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조정되어가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산자물가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Delta \ln PPI_t = & \alpha + \alpha_1 ECT_{t-1} + \sum_{i=1}^n \beta_i \Delta \ln DUBA_{t-i} + \sum_{i=1}^n \gamma_i \Delta \ln EXCRB_{t-i} \\ & + \sum_{i=1}^n \delta_i \Delta \ln M2_{t-i} + \sum_{i=1}^n \epsilon_i \Delta GSCPI_{t-i} + \zeta_t \end{aligned}$$

DUBAI: 국제 원유 가격, *EXCRB*: 에너지 제외 원자재 가격지수, *M2*: 글로벌 유동성, *GSCPI*: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 ① 본 모형을 추정하는 데 이용된 자료는 각 자료의 201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이며, GSCPI를 제외한 각 변수는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
- ② (단위근 검정) 분석에 앞서 사용된 자료들의 안정성 검정을 위해 ADF(Adjusted Dickey Fuller)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여, 차분 변수에서 1% 유의수준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남.
- ③ (공적분 검정)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업종별 생산자물가 변화, 유동성 변화, 공급망 압력지수, 국제 유가 변화, 원자재 가격 변화 사이에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1~3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 10% 상승 시 생산자물가 영향

단위: %

	국제 유가	글로벌 유동성	국제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교란
제조업	0.683	0.003	0.498	0.356
음식료품	0.034	0.239	0.176	0.053
섬유 및 가죽	0.208	0.290	0.227	0.205
석탄 및 석유	4.333	-1.098	0.872	0.095
화학	0.946	1.180	0.695	0.403
비금속광물	0.319	0.302	0.374	0.315
제1차금속	0.467	-1.744	0.442	0.179
금속가공	0.166	0.315	0.295	0.162
전기장비	0.764	0.882	0.812	0.732
기계 및 장비	0.054	0.086	0.132	0.068
운송장비	-0.016	-0.026	-0.015	-0.018

다음으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주요 요인별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물가 상승 요인별 충격은 각 변수의 2021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변수별로 국제 유가 52.3%, 글로벌 유동성 3.7%, 국제 원자재 가격(에너지 품목 제외) 24.2%,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55.1% 상승률을 부여하였다.

추정 결과 물가 상승 주요 요인들이 최근의 업종별 생산자물가 상승에 미친 기여도는 〈표 2〉와 같이 도출되었다. 2021년 1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4%로 이 중

〈표 2〉 한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2021년 12월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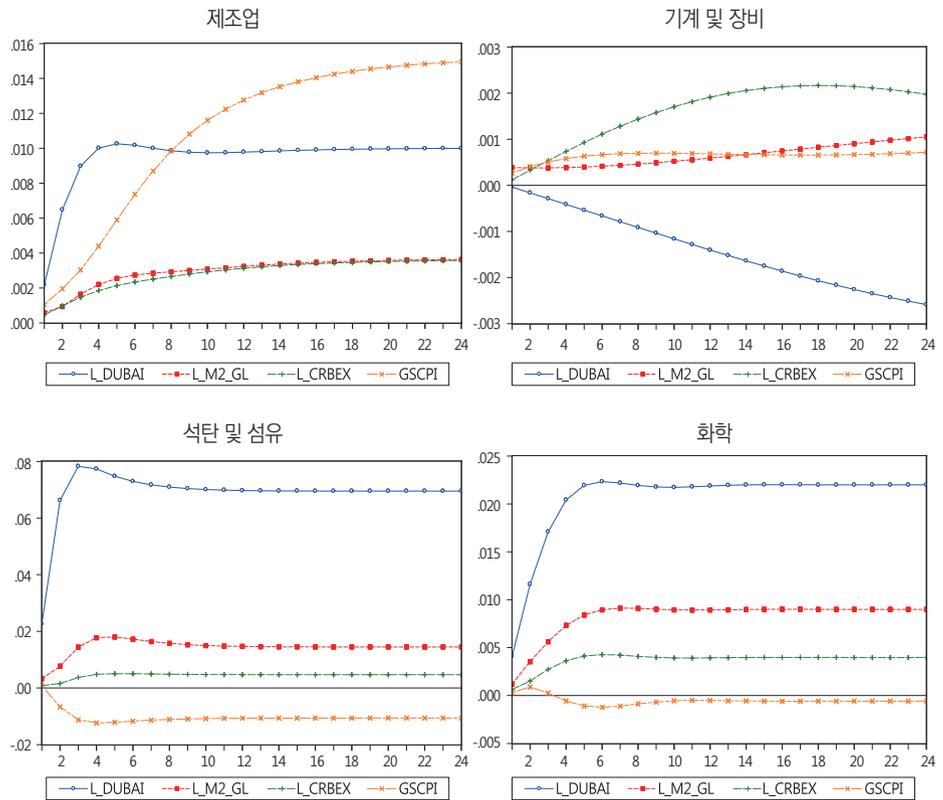
	생산자물가 상승률	국제 유가	글로벌 유동성	국제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교란
제조업	14.4	2.180	0.208	0.738	0.481
음식료품	5.2	-0.070	0.126	0.343	0.028
섬유 및 가죽	5.1	0.233	0.234	0.262	0.223
석탄 및 석유	61.1	22.069	-0.318	1.911	-0.108
화학	16.3	3.329	0.678	1.139	0.495
비금속광물	7.8	0.396	0.301	0.479	0.383
제1차금속	38.3	2.063	-0.589	0.943	0.585
금속가공	23.2	0.333	0.197	0.534	0.318
전기장비	6.7	0.984	0.775	0.955	0.827
기계 및 장비	3.3	0.012	0.072	0.229	0.086

국제 유가의 기여도가 2.18%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0.74%), 글로벌 공급망 교란(0.48%), 글로벌 유동성(0.21%)의 순을 보였다. 국제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기여도가 높은 업종은 석탄 및 석유, 화학, 제1차금속, 전기장비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유동성 충격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비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석탄 및 석유(61.1%)의 요인별 기여도는 국제 유가 22.07%, 국제 원자재 가격 1.91%로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38.3%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제1차금속의 경우에도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기여도가 각각 2.06%, 0.94% 수준으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최근 물가 상승 동인 요인들이 생산자물가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

〈그림 8〉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충격반응함수



주: 파랑 - 국제 유가(Dubai), 빨강 - 글로벌 유동성(M2), 초록 - 국제 원자재 가격(CRB), 노랑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는가를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 분석⁶⁾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충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교란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유가 충격에 생산자물가지수 반응이 높아지는 업종은 석탄 및 석유, 화학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업종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및 장비의 경우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충격의 영향도가 장기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 원유 가격 증가에 대해서는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 국내 생산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생산자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채산성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물가에도 영향을 주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물가 상승 요인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활용을 감소시켜 원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함께 원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로 갈수록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의한 생산자물가 반응 정도가 높아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공급망 교란으로 발생하는 유통 및 물류 단계 비용이 국내 판매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6) 공적분의 개수가 1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장기균형식을 파악할 수 없으며, VECM 추정 결과보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다루는 충격반응함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에 대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를 확인하였다.

지속되고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공급망 불안과 물류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단기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하여 핵심 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글로벌 유동성이 각 산업 생산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일부 산업에 영향을 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차원에서 적시에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㉑



강성우

동향·통계분석본부 연구원

swkang@kiet.re.kr / 044-287-3677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공저, 202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 방안 연구」(공저, 2020)